



## 일 지역 대학생의 헌혈행위 참여 예측요인

이은남<sup>1)</sup> · 송영선<sup>1)</sup> · 주현옥<sup>2)</sup> · 강지연<sup>3)</sup> · 김수진<sup>4)</sup> · 윤영진<sup>4)</sup> · 오주현<sup>4)</sup>

### 서 론

의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던 많은 질병들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특수 염색체 검사나 유전자 진단 등을 통해 선천성 기형을 미리 알 수도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사람의 혈액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인조혈액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혈만이 혈액의 유일한 공급원이다.

우리나라의 혈액사업은 1958년에 대한 적십자 혈액원이 국립혈액원의 시설과 장비를 인수받아 출범한 이래, 1981년 정부로부터 혈액 사업을 위탁받은 이후 헌혈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헌혈율은 아직까지도 5%대에 머물면서 선진국의 7-10%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혈액사업 통계연보, 2004). 이처럼 헌혈인구가 감소한데에는 헌혈로 인한 부작용 및 불편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헌혈관리 소홀로 인한 건강의 변화 및 전염병 감염 등의 우려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김원중, 2000).

우리나라 헌혈인구의 분포는 16-19세가 전체 헌혈자의 30.9%로 절대 다수이고, 직업별로는 학생이 41.4%, 군인이 29.2%로 학생과 군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혈액사업 통계연보, 2004). 이러한 상황에서 헌혈 실천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헌혈행위에 참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인의 헌혈행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반인의 헌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요인은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 헌혈에 대한 지식, 헌혈하려는 동기(구미숙, 1998;

박명수, 1998; 신재학 등, 1989) 등이고,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 이타주의, 자기효능감, 미래에 대한 투자(헌혈증서)가 헌혈을 하려는 주요 동기로 작용하며(홍경희와 박호란, 2003; 홍경희, 박호란, 및 송경애, 2003; 황명희, 2000),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나 헌혈당시의 분위기가 헌혈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감신 등, 1997; 신재학 등, 1989). 즉, 헌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헌혈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기효능감이나 이타적인 성향, 그리고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헌혈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들은 헌혈에 대한 필요도가 일반인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헌혈참여 정도와 예측요인이 일반인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혈행위 참여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헌혈 참여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혈액관리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헌혈행위 참여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헌혈행위에 참여하는 관련요소를 파악한다.
- 헌혈자와 비헌혈자의 헌혈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이타적 성향도를 비교분석한다.

**주요어 :** 대학생, 헌혈, 예측

1)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송영선 E-mail: yssong@dau.ac.kr), 2)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3) Clinical Faculty, Department of Nursing, Saint John Fisher College, 4) 동아대학교 의료원 간호사

- 헌혈행위 참여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규명한다

## 용어정의

### ● 헌혈에 대한 지식

헌혈에 대한 지식수준은 혈액의 구성요소와 헌혈기준 및 헌혈행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구미숙(1998)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측정 한 점수를 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특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Bandura, 1977)로 본 연구에서는 Sherer와 Maddex(1982)가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오복자(1994)가 번안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 ● 이타적 성향

이타적 성향이란 행위자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적인 보상을 얻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려는 특성으로(Bar-Tal, 1976), 본 연구에서는 황명희(2000)가 청소년 헌혈자들의 이타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이타적 동기 및 사회적 책임감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적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헌혈행위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4년 12월 12일에서 12월 21일까지 10일간 B시에 위치한 일개 의과대학 전교생 2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뒤 연구에 동의한 학생 255명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248부였으며(회수율 97.2%), 그 중 불성실한 질문지는 제외하고 230부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 연구도구

조사표의 설문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헌혈관련 특성에 관한 내용 17문항, 응답자의 헌혈 및 혈액에 관한 지식 26문항,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 10문항, 그리고 응답자의 이타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 헌혈에 대한 지식

헌혈 및 혈액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구미숙(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타 연구의 도구를 참조하여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헌혈 기준과 관계된 지식 6문항, 헌혈 실시 및 혈액 취급에 관계된 지식 4문항, 헌혈과 수혈에 관계된 지식 7문항, 그리고 혈액에 관계된 지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을 맞힌 경우 1점, 틀린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26점이었다.

### ● 자기효능감

대학생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와 Maddex(1982)의 일반적 자기효능감도구를 오복자(1994)가 번안, 수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가 .87이었다.

### ● 이타적 성향

대학생들의 이타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황명희(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 헌혈자들의 이타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이타적 동기 및 사회적 책임감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20-100점이다. 황명희(2000)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을 이용하여  $\chi^2$ 와 t-test로 분석하였으며 헌혈경험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특성

#### ●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응답자 230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0.9세였고 남학생 66명(28.7%), 여학생 164명(71.3%)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126명(54.8%), 종교가 없는 경우가 104명(45.2%)으로 종교인이 많았고, 월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51명(22.2%), 400만원 미만인 179명(77.8%)이었다. 심각한 건강상태에 대해 101명(43.9%)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였고, 129명(56.1%)이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 ● 헌혈관련 특성

헌혈관련 특성으로 헌혈 횟수 별 분포를 보면 헌혈 무경험자가 40.9%, 1회가 17.0%, 2회가 11.6%, 5회 이상이 16.5%였다. 한편 가족의 헌혈경험이 있는 경우가 56.1%였으며, 헌혈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77.4%였다. 헌혈권유를 받은 경험 있는 경우 권유자는 홍보언론이 66.3%, 친구가 19.1%, 학교가 11.8%, 의료인이 4.5%, 가족이 2.2%, 종교단체가 0.6%

순으로 대부분 헌혈 홍보인이나 광고를 통해 헌혈을 권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에 대한 반대권유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44.3%가 반대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고, 55.7%는 반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헌혈을 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은 응답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에 대한 반대 권유자로는 가족이 44.1%, 의료인이 22.5%, 친구가 20.6%로 가족에 의해 헌혈을 하지 말라는 권유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헌혈자와 비헌혈자의 헌혈관련지식, 자기효능감과 이타주의 성향도를 비교한 결과, 헌혈관련 지식 점수는 두 그룹 공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기능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헌혈을 통한 에이즈감염가능성,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물질, 헌혈이 가능한 연령, 조절과 관계가 적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2>.

헌혈에 대한 총 지식 점수는 헌혈자의 경우 17.45±3.51점, 비헌혈자의 경우 평균 17.22±3.25점으로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492, p=.623$ ), 이타적 성향도의 평균도 헌혈자의 경우 68.40±8.16점, 비헌혈자의 경우 66.43±7.48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864, p=.064$ ). 반면에 자기효능감 점수는 헌혈자의 경우 평균 36.21±5.45점, 비헌혈자는 34.56±5.57점으로 헌혈자가 비헌혈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225, p=.027$ )<Table 3>.

<Table 1> Blood don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0

Variables	Categories	n(%)
Number of blood donation	0	94(40.9)
	1	39(17.0)
	2	27(11.6)
	3	23(10.0)
	4	9 (3.9)
	≥5	38(16.5)
Place of blood donation* (n=136)	Group blood donation	54(39.7)
	Blood center	7( 5.1)
	General blood donation	4( 2.9)
	Street's blood donation	12( 8.8)
Solicitor for blood donation* (n=178)	Blood house	97(71.3)
	Street campaign, Mass media	118(66.3)
	Family members	4( 2.2)
	Friend	34(19.1)
	School	21(11.8)
	Medical personnel	8( 4.5)
	Religious organization	1( 0.6)
Solicitor against blood donation (n=102)	Family members	45(44.1)
	Medical personnel	23(22.5)
	Personnel of blood donation	7( 6.9)
	Friend	21(20.6)
	Teacher	1( 1.0)
	Others	5 (4.9)

\* duplicated answers

### 헌혈행위 참여 예측요인

#### ● 대상자 특성별 헌혈행위 참여

헌혈행위는 남성이 74.2%, 여성은 53.0%로 남성이 높았으며( $\chi^2=8.747, p=.003$ ),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헌혈행위가 65.9%로 유의하게 높았다( $\chi^2=5.242, p=.031$ ). 또한 건강상태가 좋다고 한 사람의 헌혈행위가 71.3%로 높았다( $\chi^2=11.012, p=.001$ ), 그러나 월수입 수준과 헌혈행위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13, p=.628$ ).

가족 중 부모나 형제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헌혈행위가 65.1%로 경험이 없는 사람의 51.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chi^2=7.938, p=.019$ ). 또한 헌혈권유를 받은 사람의 헌혈행위가 63.5%로 유의하게 높아 헌혈에 대한 권유를 받았는지 여부도 헌혈경험유무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5.556, p=.018$ ). 그러나 헌혈행위 반대 권유는 헌혈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42, p=.623$ )<Table 4>.

### 헌혈행위 경험 유무별 예측요인 분석

헌혈행위 경험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성별, 종교유무, 심각한 건강상태, 가족헌혈경험 유무, 헌혈행위 권유경험 유무, 그

<Table 2> Comparison of the level of knowledge for the blood donation between blood donors and non-donors

Questions	Blood donors (n=94)	Non-donors (n=136)
	Mean ±SD	Mean ±SD
What is the minimum age for blood donation ?	.186±.390	.174±.381
What is the minimum weight for blood donation ?	.732±.445	.651±.478
What is blood test for blood donation ?	.516±.502	.546±.499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blood donation and blood pressure ?	.742±.440	.803±.399
How much blood is withdrawn during a blood donation?	.474±.502	.288±.454
What is the minimum period between blood donations ?	.804±.399	.705±.458
What type of blood vessel is used for blood donation ?	.753±.434	.705±.458
How is the puncture site handled after donation ?	.959±.199	.886±.319
How is the blood kept ?	.918±.277	.864±.344
What percent of weight is blood in the body ?	.289±.455	.303±.461
What is the vein ?	.856±.353	.849±.360
What is the anti-coagulant?	.144±.353	.106±.309
What causes anemia ?	.897±.306	.909±.289
What is the most safe method of transfusion ?	.866±.342	.841±.367
What is Rh negative ?	.258±.439	.220±.416
What disease is transmitted by transfusion?	.794±.407	.773±.421
Is AIDS transmitted by blood donation?	.113±.319	.091±.289
What is the component of blood?	.866±.342	.894±.309
What organ makes blood ?	.845±.363	.818±.387
How is blood maintained in healthy people ?	.732±.445	.750±.435
What foods help correct anemia?	.186±.391	.174±.381
What is the role of red blood cells?	.979±.143	.977±.149
What is the role of white blood cells?	.979±.143	.977±.149
What is the role of the platelets?	.979±.143	.962±.192
What is the role of the plasma?	.897±.306	.871±.336
What is the coagulo-pathy	.959±.199	.955±.209
Total	17.45±3.51	17.22±3.25

<Table 3> Comparison of knowledge, self efficacy, & altruistic attitude between blood donors and non donors

	Total(n=230)	Blood donors(n=94)	Non-donors(n=136)	t	p
	Mean±S.D	Mean±S.D	Mean±S.D		
Knowledge	17.36±3.40	17.45±3.51	17.22±3.25	-.492	.623
Self efficacy	35.53±5.55	36.21±5.45	34.56±5.57	-2.225	.027*
Altruistic attitude	67.59±7.92	68.40±8.16	66.43±7.48	-1.864	.064

리고 자기효능감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대상자의 특성 중 지각된 건강상태(Wald=9.882, p=.002), 가족헌혈경험 유무(Wald=6.107, P= .013), 종교 유무(Wald=4.427, p=.035) 및 성별(Wald =7.929,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Table 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7.741$ , p>.05), 비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가장 큰 것은 지각된 건강상태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의한 정 분류율은 68.3%였다.

## 논 의

첨단과학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혈액성분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혈에 필요한 혈액과 치료용 의약품의 원료

로 쓰이는 혈장은 사람의 몸에서 얻을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수 없다는 인류공동의 윤리적 가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살아 있는 세포로 구성된 혈액은 일정기간 이상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어야 하므로 헌혈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혈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헌혈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헌혈 실태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헌혈 경험율이 59.1%였고 3회 이상 참여한 경우도 30.4%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생들의 헌혈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구미숙(1998)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헌혈 경험률이 44.3%였던 것과 대학생의 헌혈행위를 조사한 감신 등(1997)의 연구에서 헌혈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lood donation experienc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Blood donation experience		$\chi^2$	p
			Yes	No		
			N(%)	N(%)		
Gender	Male	66	49(74.2)	17(25.8)	8.747	.003**
	Female	164	87(53.0)	77(47.0)		
Religion	No	104	53(51.0)	51(49.0)	5.242	.031*
	Yes	126	83(65.9)	43(34.1)		
Monthly income(won)	Over 4 million	51	32(62.7)	19(37.3)	.413	.628
	Under 4 million	179	103(57.5)	76(42.5)		
Perceive health status	Healthy	101	72(71.3)	29(28.7)	11.012	.001**
	Unhealthy	129	64(49.6)	65(50.4)		
Blood donation experience of family members	No	101	52(51.5)	49(48.5)	7.938	.019*
	Yes	129	84(65.1)	45(34.9)		
Solicited experience for blood donation	No	52	23(44.2)	29(55.8)	5.556	.018*
	Yes	178	113(63.5)	65(36.5)		
Solicited experience against blood donation	No	128	73(57.0)	55(43.0)	0.242	.623
	Yes	102	63(61.8)	39(38.2)		

〈Table 5〉 Logistic regression for the prediction of blood donation behavior

N=230

Predictive variables	B	S.E	Wald	df	p
Perceived health status	-.931	.298	9.882	1	.002**
Gender	-.879	.344	7.929	1	.005**
Blood donation experience of family	.613	.271	6.107	1	.013*
Religion	-.601	.291	4.427	1	.035*
Constant	2.649	.888	8.905	1	.003**
-2Log Likelihood	274.655				
$\chi^2(df=8)$	7.741				
p	.459				
Total hit ratio	68.3				

경험률이 51.8 %였던 것에 비해 의대나 간호 대학생이 헌혈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 지식 등에서 접근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헌혈행위 참여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신재학 등(1989)의 연구에서 헌혈군이 비헌혈군에 비해 남자가 11%정도 많았던 것과 일치하며, 감신 등(1997)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경우 79.1%가 헌혈한 적이 있는 반면에 여학생은 단지 29.4%만이 헌혈한 적이 있다고 하여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 이는 여성의 경우 체형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잘못된 관리로 인해 발생한 식습관 불균형이 혈색소 감소 등을 야기시켜 여성들의 헌혈검사 적합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것(최정희, 2000)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혈소판 헌혈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최미조(2001)의 연구와 혈소판 공여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배영이(1999)의 연구에서도 혈소판 헌혈 경험이 있는 군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가족들의 헌혈행위 참여경험 유무도 헌혈행위 참여여부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지만 44.3%가 헌혈을 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은 경험

이 있었고, 헌혈에 대한 반대 권유자로 가족이 44.1%, 특히 부모가 상당 수준이었던 것과 연관시켜 볼 때, 가족들이 헌혈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헌혈행위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대리경험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헌혈행위는 헌혈 권유를 받은 사람이 높았는데, 이는 신재학 등(1989)의 연구에서 헌혈자군이 비헌혈자군보다 헌혈권유를 받은 사람의 분포가 많았던 것과 일치한다. 또한 헌혈에 대한 홍보접촉이 많을수록 헌혈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박명수(1998)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볼 때 헌혈에 대한 홍보접촉이 많을수록 헌혈권유에 대한 경험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혈권유를 한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오대성(1980)의 연구에서는 헌혈차 직원, 친구 순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거리 홍보가 66.3%로 나타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홍보계몽 활동이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인적 매체가 비 인적 매체보다 지식 및 설득 단계는 물론 특히 의사 결정 단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순히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서 의사결정 단계

에서는 학교, 직장 등의 집단 캠페인으로 홍보한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헌혈행위 참여여부를 예측하는데 가장 유의한 변수는 지각한 건강상태였는데, 이는 헌혈자들의 헌혈과 수혈에 관한 태도와 지식에 대한 연구(박명수, 1998)에서 대상자의 96%가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하였고 헌혈에 주요 동기로 '남들보다 건강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것과 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헌혈자와 비헌혈자의 헌혈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동기에 대한 신재학 등(1989)의 연구에서도 헌혈자군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가, 비헌혈자군에서는 '다소 불편하다'가 많아 헌혈자와 비헌혈자간에 지각한 건강상태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Royse와 Doochin(1995)에 따르면 반복 헌혈자들은 건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헌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건강행위를 지속한다고 하였다. 반복헌혈자의 헌혈 반복성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조사한 홍경희와 박호란(2003)의 연구에서도 반복헌혈자들은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간이상의 높은 건강증진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었다.

헌혈자와 비헌혈자 간에 헌혈관련 지식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헌혈자의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신재학 등(1989)의 연구, 헌혈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헌혈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한 박명수(1998), 감신 등(1997)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써 헌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지각된 자기효능감 수준은 헌혈자의 헌혈 반복성과 건강증진행위, 자기효능감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조사한 홍경희와 박호란(2003)의 연구에서도 성분 헌혈자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50점 만점에 37.9 ± 5.5점을 보여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높은 자기효능감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헌혈자들이 이미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강인함을 증명하려는 자아 이미지가 강하며, 자신감과 건강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Royse & Doochin, 1995)는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헌혈자가 비헌혈자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도 홍경희와 박호란(2003), 홍경희 등(2003)의 연구에서 헌혈경험횟수가 많은 군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아인식과 개인적 행동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개인이 특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이므로(Bandura, 1977), 헌혈경험자의 경우 헌혈에 대한 완성의 경험이 다시 헌혈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헌혈에 대한 반복적인 성공을 통해 자기효능에 대한 기대가 증가됨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헌혈

을 반복하거나 시도하는 사람에게 헌혈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인식을 지니도록 격려함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 헌혈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던 반복헌혈자들의 경험과 느낌을 알려줌으로서 대리적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도 헌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법이라 할 수 있다.

헌혈자와 비헌혈자 간의 이타적 성향도는 차이가 없었는데, 청소년 헌혈자들의 이타적 성향을 조사한 황명희(2000)의 연구에서는 헌혈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이타적 성향이 높았고, 헌혈횟수의 증가에 따라 이타적 성향이 강해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혈소판 헌혈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최미조(2001)의 연구에서도 헌혈자의 인성 및 봉사활동 참여 점수가 비헌혈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헌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구미숙(1998)의 연구에서 헌혈을 하는 주된 이유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봉사정신'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감신 등(1997)의 연구에서도 헌혈의 동기로는 인도주의적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으며, 성분헌혈자의 자기효능감과 관련요인을 조사한 홍경희 등(2003)의 연구에서도 '신선한 혈소판으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가 주요 동기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 접근하여 추후에 대상자 수를 좀 더 늘려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일반인과는 달리 의대생과 간호대생들의 헌혈행위 참여여부를 예측하는데는 헌혈에 대한 지식수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얼마나 좋게 지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였으므로 이들의 지각한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적용하여 헌혈참여를 촉진하고 반복헌혈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생과 의대생의 헌혈행위 참여도와 헌혈행위 참여경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4년 12월 12일에서 12월 21일까지 10일간 D대학교 의과대학 전교생 285명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230명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특성을 위한 설문지와 헌혈 관련 지식(구미숙, 1998), 자기효능감(오복자, 1994)과 이타적 성향(황명희, 2000)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을 이용하여  $\chi^2$ 와 t-test로 분석하였으며 헌혈경험자와 비경험자를 판별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 가운데 40.9%는 헌혈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고 59.1%는 헌혈행위에 1회 이상 참여하였다.
- 헌혈자의 헌혈관련 지식수준( $t=-.492, p=.623$ )과 이타주의적 성향도( $t=-1.864, p=.064$ )는 비헌혈자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225, p=.027$ )
- 헌혈행위 참여율은 남자가 높았고( $\chi^2=8.747, p=.003$ ),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헌혈행위 참여율이 높았으며( $\chi^2=5.242, p=.003$ ), 가족들이 헌혈행위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참여율이 높았다( $\chi^2=7.938, p=.019$ ). 또한 헌혈자는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였고( $\chi^2=11.012, p=.001$ ), 헌혈행위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받은 사람의 참여율이 높았다( $\chi^2=5.556, p=.023$ )
- 헌혈행위 참여 예측요인은 지각한 건강상태(Wald=9.882,  $p=.002$ ), 가족들의 헌혈경험유무(Wald=6.107,  $p=.013$ ), 종교유무(Wald=4.427,  $p=.035$ ), 성별(Wald=7.929,  $p=.005$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 가족들의 헌혈경험유무, 종교유무, 성별이 헌혈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헌혈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대학생들의 이타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도구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대학생들의 헌혈참여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지각된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감 신, 김성아, 강운식, 박기수, 손재희, 예민혜, 이경은, 김종규, 송달효 (1997). 대학생들에서의 헌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수혈학회지*, 8(2), 310-312.

구미숙 (1998). 일부 대학생들의 헌혈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원중 (2000). 헌혈자의 헌혈에 대한 인식과 헌혈 참여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산.

박명수 (1998). 헌혈자들의 헌혈과 수혈에 관한 태도 및 지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산.

배영이 (1999). 혈소판 헌혈에 대한 지정공여자의 부담감. 카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신재학, 사공준, 김석범, 김창윤, 강복수, 정중학 (1989). 헌혈자와 비헌혈자의 헌혈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동기에 대한 비교. *영남의대 학술지*, 6(2), 159-172.

오대성 (1980). 일부 헌혈 미경험 청소년들의 헌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오복자 (1994). 위암환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예측 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최미조 (2001). 혈소판 헌혈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최정희 (2000). 여대생의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과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혈액사업통계연보 (2004). 대한 적십자사. 서울.

홍경희, 박호란 (2003). 헌혈자의 헌혈반복성과 건강증진 행위, 자기효능감,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7(2), 333-341.

홍경희, 박호란, 송경애 (2003). 성분헌혈자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변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7(1), 122-131.

황명희 (2000). 청소년의 이타적 성향과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Unifying of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84, 191-215.

Bar-Tal, D. (1976).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D.C. :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Rogers, E. M., & Shoemaker, F. F. (1971). *Communication of innovation*. The free press, New York.

Royse, D., & Doochin, K. E. (1995). Multi-gallon blood donors : who are they?. *Transfusion*, 35, 826-831.

Sherer, M., Maddux, J. E. (18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51, 663-667.

## Predictive Factors of Blood Don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Lee, Eun-Nam<sup>1)</sup> · Song, Young Sun<sup>1)</sup> · Ju, Heon-Ok<sup>2)</sup> · Kang, Ji-Yeon<sup>3)</sup>  
Kim, Soo-Jin<sup>4)</sup> · Oh, Joo-Hyun<sup>4)</sup> · Youn, Young-Jin<sup>4)</sup>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2)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3) Clinical faculty, Department of Nursing, Saint John Fisher College,

4) RN, Dong-A Medical Center, Dong-A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ortant factors for predicting blood donation behavior of medical &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To analyze these issues using logistic regression, we collected data from 230 nursing & medical students of D University in B city by using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December 12 to December 21, 2004. Knowledge for blood donation was measured by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Koo(1982), self efficacy was assessed by General Self Efficacy Scale (Sherer & Maddux, 1982), and altruistic attitude was measured by Altruistic motivation & Responsibility Scale(Jo, 1996).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by using SPSS/Win 11.0 version. **Results:** As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actors which showed significance for predicting blood donation behavior were the perceived health status, family member's experience for the blood donation, religion and gender.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college students and to conduct a campaign for blood donation around college students whose family members have had the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rate of blood donation in medical and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Students, Blood donors, Logistic model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Young Sun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3 Ga-1, Tongdaesin-Dong, Seo-Gu, Busan 602-103, Korea

Tel: 82-51-240-2877 Fax: 82-51-240-2947 E-mail: yssong@dau.ac.kr